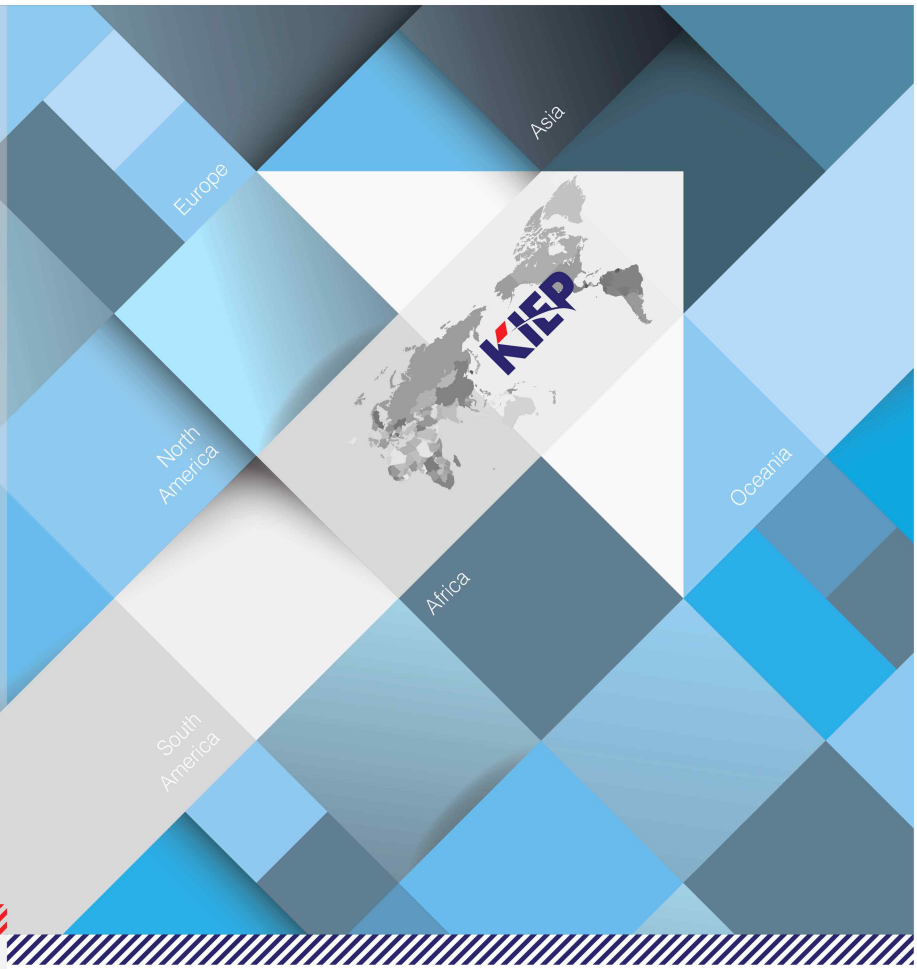


KIEP 기초자료
22-03

2022년 4월 5일

한·코카서스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미래협력 방향

정동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dyjeong@kiep.go.kr, 044-414-1167)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한·코카서스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미래협력 방향

요약

▶ 한국과 코카서스 3국(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은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해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이했으나 경제협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협력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코카서스는 시장규모는 작지만 아시아와 유럽, 인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교통·물류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 생산, 공급국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지역임.
- 한국의 대코카서스 교역은 2021년 기준 수출 2억 3,400만 달러, 수입 6,000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며, 2018년부터 신규법인이 1건도 보고되지 않는 등 투자가 정체된 상황임.
- 아제르바이잔이 2016년 제2기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되면서 개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2021년 선정한 제3기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되면서 원조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음.
- 다만 조지아, 아르메니아에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등 방문이 간편해지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코카서스 지역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최근 인적 교류가 빠르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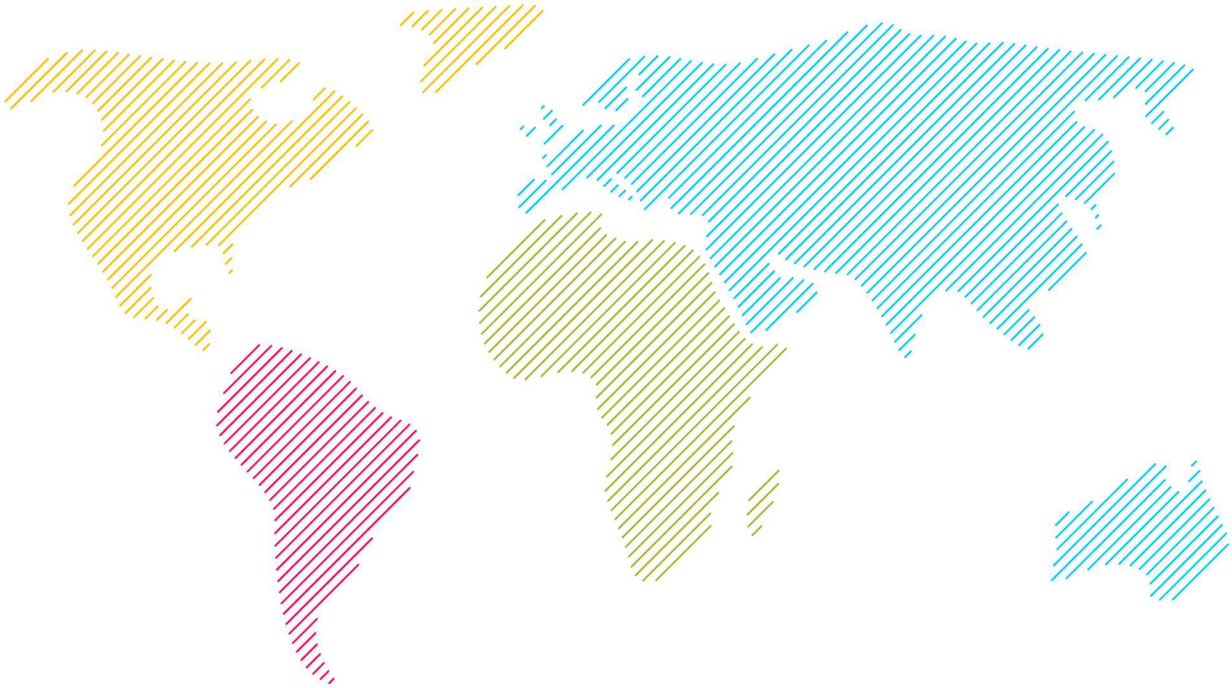
▶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등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한국과 코카서스 3국 간 질적으로 발전한 새로운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함.

- 코카서스 3국의 전략적 가치와 중장기 발전전략, 한국의 북방 협력전략을 고려할 때 농업과 더불어 식품가공, 교통·물류, 관광,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이후 회복한 영토를 재건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조지아는 수력발전 인프라 구축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해당 분야를 우선 협력 분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또한 정부간 협의의 정례화, ODA 전략 전환, 인적 교류 확대 등 인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을 통해 관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정부간 협의를 정례화함으로써 소통을 확대하고, ODA를 정책자문, 지식공유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민간진출과 연계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 인적 교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직항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관련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것임.

▶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정학적 질서, 세계무역환경 및 국제금융질서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사태의 파급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코카서스를 포함한 북방 국가와의 협력방향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차 례

1. 연구 배경과 의의

2. 한·코카서스 관계 개관
   가. 코카서스 지역의 전략적 가치
   나. 한·코카서스 관계 약사

3. 경제협력 평가
   가. 교역 및 투자
   나. ODA 및 인적 교류

4. 미래협력 방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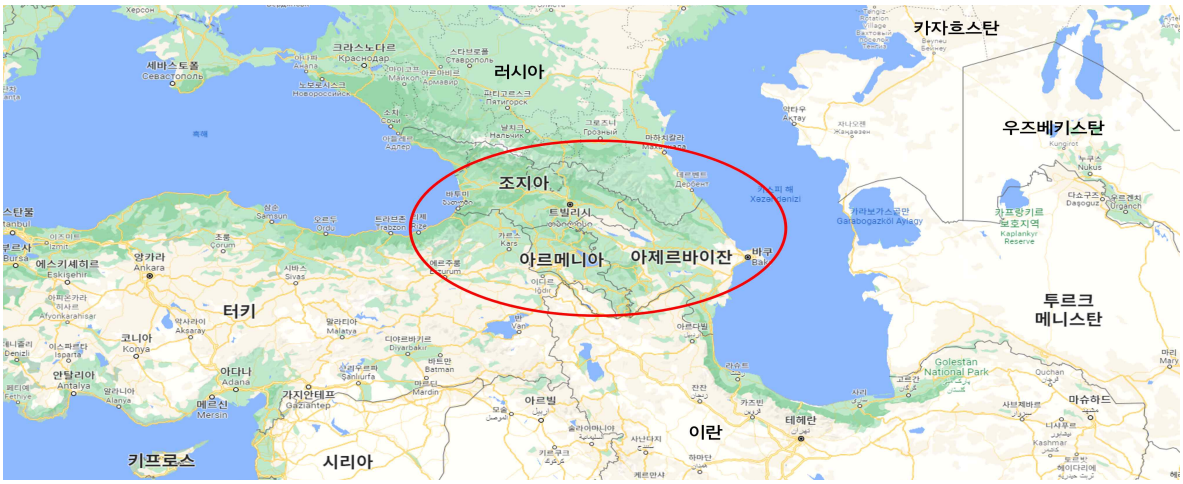
참고문헌

1. 연구 배경과 의의

■ 코카서스 지역은 코카서스 산맥 남부에 위치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3국을 의미하며, 시장규모는 작지만, 지리적 위치와 카스피해의 석유·천연가스 자원 등으로 지경학적 중요성이 높음.

- 코카서스는 2020년 기준 총인구 1,677만 명, GDP(명목) 711억 달러의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음.[1)]
  - ○ 아제르바이잔이 역내 인구 및 GDP의 6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며(인구 1,000만 명, GDP 426억 달러), 그다음으로 조지아(인구 370만 명, GDP 159억 달러), 아르메니아(인구 300만 명, GDP 126억 달러) 순임.
- 그러나 동서 및 남북 통과회랑으로서 교통·물류 잠재력이 크고, 카스피해에서 에너지 자원을 생산하고 이를 주변국과 유럽에 공급하고 있어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지역임.

그림 1. 코카서스의 지리적 위치



자료: 구글 지도를 바탕으로 저자 보완(검색일: 2022. 1. 27).

■ 한국은 1992년 코카서스 3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정부간 협력 및 민간 투자, 개발원조 등을 통해 협력을 이어왔으나 경제협력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그간의 경제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새롭게 점검해 볼 필요가 제기됨.

- 한국과 코카서스 3국 간 교역은 2021년 기준 한국 수출 2억 3,400만 달러(한국 총수출의 0.04%), 수입 6,000만 달러(총 수입의 0.01%)로 미미한 수준이며 2018년 이래 신규투자도 보고되지 않고 있음.

■ 본 자료에서는 지난 경제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코카서스 3국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 분야 및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미래협력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자 함.

1) World Bank Data(검색일: 2022. 3. 10).

2. 한·코카서스 관계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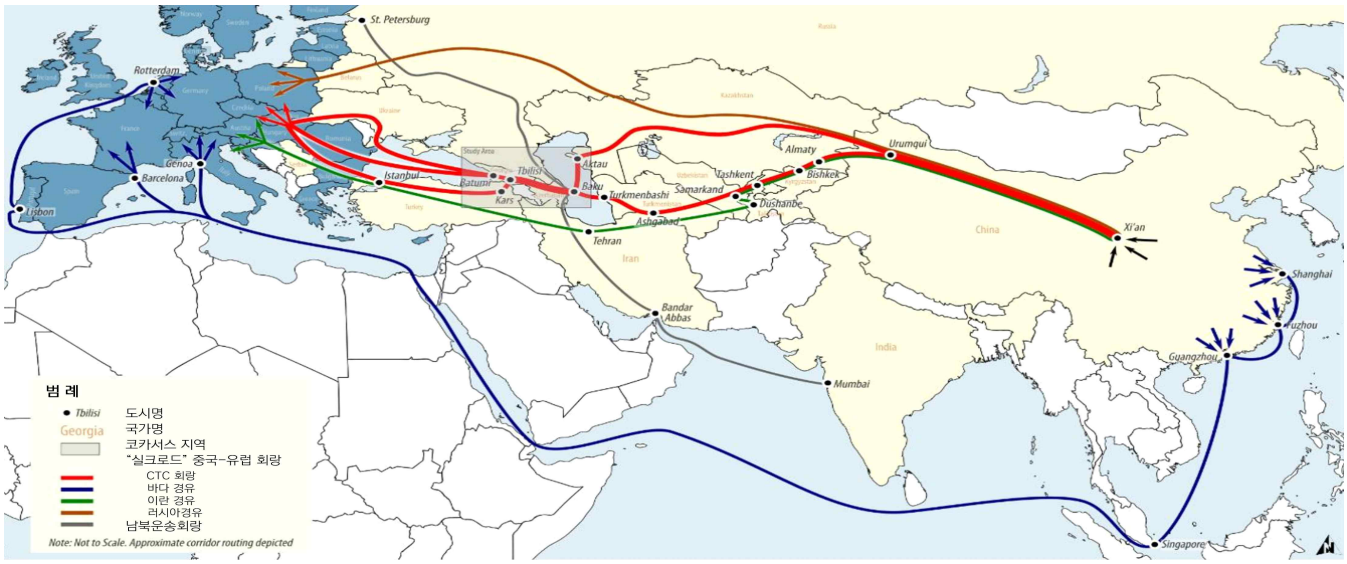
가. 코카서스 지역의 전략적 가치

■ 코카서스는 동서로 아시아와 유럽, 남북으로 인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교통·물류의 교차점에 자리잡고 있으며 카스피해에서 에너지 자원을 생산해 주변국으로 공급하는 생산지이자 공급 라인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게 평가됨.

■ 코카서스는 일대일로 운송망과 연계해 중국과 유럽을 동서로 잇고, 인도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연결하는 국제남북운송회랑(INSTC: 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이 관통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임.

-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터키를 연결하는 BTK(Baku-Tbilisi-Kars) 철도가 카스피해를 통과해 중국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2017년 개통된 이래 물동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 2021년 상반기에만 2020년 전체 물동량(11,748 TEU)의 94%에 달하는 11,084 TEU의 화물을 운송한 것으로 보고됨.[2)]

그림 2. 코카서스를 통과하는 교역망 및 대체경로



주: CTC Corridor는 The Trans-Caucasus Transit Corridor를 의미함.
자료: World Bank(2020), "Improving Freight Transit and Logistics Performance of the Trans-Caucasus Transit Corridor: Strategy and Action Plan," p. 6.

- 국제남북운송회랑은 인도(뭄바이)에서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연결된 복합운송회랑으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해상 루트를 이용할 시 30~45일 이상 소요되던 운송기간을 15~24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음.[3)]

2) "BTK boosts container freight transportation in 1H2021"(2021. 7. 13).

○ 2018년 뭄바이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운송을 시작했으며, 2021년 6월에는 핀란드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거쳐 인도까지 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등 인도에서 북유럽까지 운송망을 확장하고 있음.[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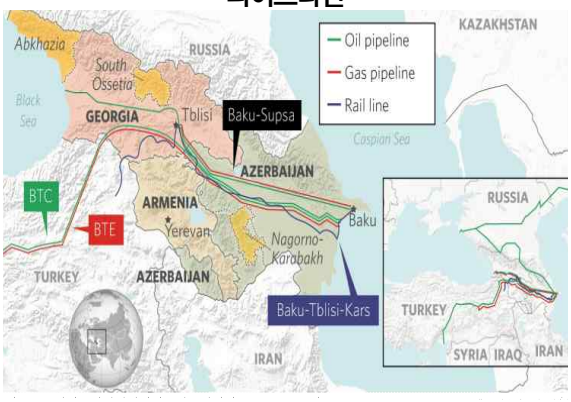
○ INSTC를 통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0년 21,000 TEU에서 2030년 325,000~662,000 TEU(590~1,19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곡물 등 비컨테이너 물동량을 포함할 경우 2030년에 총 1,460~2,470만 톤의 화물이 운반될 것으로 예상됨.[5)]

- 또한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넓은 배후시장인 러시아, 이란, 터키와의 직접적인 연결성 역시 개선되고 있음.

■ **카스피해에 인접한 아제르바이잔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조지아를 거쳐 터키 및 유럽으로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어 자원 공급 차원에서 코카서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세계 0.4%에 해당하는 원유와 1.4%에 해당하는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6)] BTC(Baku-Tbilisi-Ceyhan) 송유관과 BTE(Baku-Tbilisi-Erqurum) 가스관을 통해 터키까지 연결되어 있음(그림 3 참고).
- 또한 BTE가 이탈리아까지 연결된 남부가스회랑(SGC: Southern Gas Corridor)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운데(그림 4 참고), 2020년 12월 31일 SGC가 완전히 가동되면서 아제르바이잔이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을 본격화함.
  ○ 2021년 대유럽(이탈리아, 그리스, 불가리아) 가스 수출은 8.1bcm(billion cubic meters)이었으며, 2022년에는 9bcm, 2023년에는 11bcm으로 수출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7)]
- 유럽 역시 에너지 다각화와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공급 루트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를 기존의 1/3(2022년 말까지)로 낮추고자 하고 있어 SGC의 중요성이 강조됨.[8)]

그림 3. 코카서스를 통과하는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자료: "In the Caucasus, Competition Will Limit Cooperation" (2018. 2. 7).

그림 4. 남부가스회랑(Southern Gas Corridor)

자료: Southern Gas Corridor 홈페이지(검색일: 2022. 1. 27).

3) Eurasian Development Bank(2021), p. 52.
4) "INSTC connects Europe with India for first time"(2021. 6. 24).
5) Eurasian Development Bank(2021), pp. 57~58, 67.
6) BP(2020), pp. 14-34; "How Azerbaijan changed energy map of the Caspian Sea"(2021. 4. 29).
7) "TAP announced final volumes of Azerbaijani gas supplies to Europe"(2022. 1. 15).
8) "Southern Gas Corridor playing crucial role for Europe's energy security - analysis"(2022. 1. 13);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2022. 3. 8).

나. 한·코카서스 관계 약사

■ 한국과 코카서스 3국은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해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이함.

- 한국은 1992년 아르메니아(2월 21일), 아제르바이잔(3월 23일), 조지아(12월 14일)와 각각 수교를 맺음.
- 아제르바이잔에만 한국정부의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지아는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서 겸임, 아르메니아는 러시아 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음.
  - ○ 조지아에는 2015년부터 분관(트빌리시)을 두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정상의 상호 공식방문을 제외하고 정상간 직접적인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간 협의 채널로 정책협의회와 경제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총리, 장·차관, 국회의장 등 고위급 교류는 지속되고 있으나 정상간 방문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공식방문과 2007년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국빈방한이 유일함.
- 한국은 2009년, 2015년, 2017년 아제르바이잔과 정책협의회(외교부 차관급)를 개최했으며, 2016년, 2020년에는 경제공동위원회(차관급)를 개최함.
  - ○ 경제공동위원회는 2006년부터 개최되어온 경제협력위원회를 격상한 것으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아제르바이잔 교통통신첨단기술부 차관이 대표로 참석함.[9)]
- 아르메니아와는 2005년, 2011년, 2014년 한국 외교부 유럽국장과 아르메니아 외교차관 간 정책협의회가 개최됨.
- 한국과 조지아는 2012년 체결한 외교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2017년, 2020년 제외) 외교부 유럽국장과 조지아 외교부 차관 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에는 경제공동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됨.
  - ○ 경제공동위는 2019년 체결된 경제협력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목적으로 출범했으며, 한국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조지아 경제지속성장부 차관을 대표로 함.[10)]

■ 한국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아제르바이잔과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경제협력협정 등을 체결했으며, 아르메니아 및 조지아와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관련 협정을 체결하며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음.

- 조지아와 2019년에 경제협력협정과 EDCF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2021년에 항공협정 체결 및 FTA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경제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기반을 빠르게 강화해 나가고 있음.
  - ○ 양국은 2020년 FTA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동연구에 합의하고 2021년 이를 완료함.[11)]
  - ○ 한국과 조지아는 아직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상호 편리한 시기에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기로 2019년 합의함.[12)]

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0. 2. 5).
10) 「한·조지아 경제공동위 출범…관광 등 실질협력 논의」(2019. 12. 24).
11) MINISTRY OF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GEORGIA 보도자료(2020. 11. 9); "More Koreans in Georgia, more Georgians in Korea"(2021. 5. 26).
12) 외교부 보도자료(2019. 3. 11).

- 한편 아르메니아와는 경제협정으로 투자보장협정을 유일하게 체결하고 있으나 한국정부가 아르메니아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상품·서비스·투자를 포함한 포괄적 FTA를 추진 중임.
  - ○ 양측은 2016년 FTA 추진에 합의한 이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협상 개시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음.[13)]

표 1. 한국과 코카서스 3국 간 주요 협정 체결 현황

연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2006	-	문화협정, 항공협정	-
2007	-	투자보장협정	-
2008	-	이중과세방지협정	-
2012	-	경제협력협정	-
2013	-	EDCF 기본협정	-
2014	문화, 체육, 교육 협력협정	-	해상운송협정, 문화·예술·교육·청소년·체육 협력협정
2016	-	-	이중과세방지협정
2018	투자보장협정	세관상호지원협정	-
2019	-	무상원조기본협정	EDCF 기본협정, 경제협력협정
2021	-	-	항공협정

주: 협정 서명일 기준이며, 체결 협정은 모두 발효되었음.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20. 2. 26).

3. 경제협력 평가

가. 교역 및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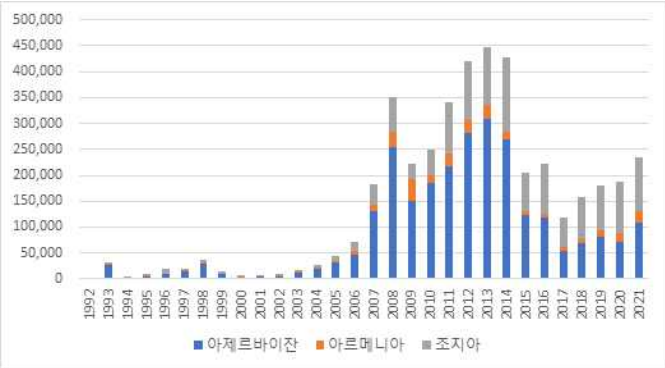
■ 한국과 코카서스 3국의 교역은 2010년대 초중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0년대 후반부터 승용차를 중심으로 대코카서스 수출이 빠르게 증가했으나 2014년 이후 저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로 현지의 구매력이 저하되면서 2017년 수출액은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1억 1,900만 달러에 그침.
- 2018년부터 코카서스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교역이 서서히 증가해 2021년 대코카서스 수출은 2억 3,400만 달러, 수입은 6,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이는 한국 총수출의 0.04%, 총수입의 0.01%로 여전히 낮은 수준임.
  - ○ 아제르바이잔은 국제유가 상승과 신규 가스전 개발, 활발한 정부투자에 힘입어 2018년부터 회복세로 전환했고,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도 주변국 경제회복에 따라 해외수요와 해외송금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이 탄력을 받았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한국의 코카서스 수출이 최대치를 기록한 2013년 아제르바이잔은 한국의 84위 수출국이었으나 2021년 수출액 기준으로 아제르바이잔 105위, 조지아 107위, 아르메니아 148위로 3국 모두 100위권 밖에 위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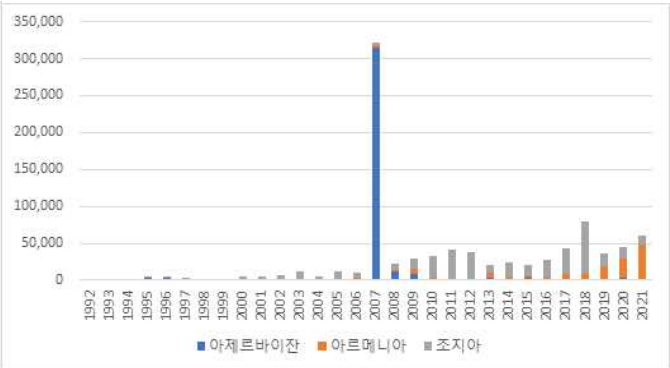
13) 「통상본부장,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과 한러 FTA 등 논의」(2021. 12. 17).

그림 5. 한국의 대코카서스 교역 추이

〈수출〉 (단위: 천 달러)



〈수입〉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2. 2. 3).

■ 한국의 핵심 수출품은 승용차로 2021년 기준 전체 수출의 35.5%를 차지함.

- 2014년 2억 3,500만 달러(당시 수출의 55%)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한국의 승용차 수출은 현지 내수침체와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 등의 영향으로 3,400만 달러(2018년)까지 급감했으나 지역경제 회복과 함께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 2021년 승용차 수출은 8,300만 달러로 여전히 대코카서스 수출을 견인하는 최대 수출품임.
  - ○ 한국 자동차의 코카서스 시장점유율은 상승 중으로 아제르바이잔에서 현대기아차가 아브토바즈(AVTOVAZ, 러시아), 메르세데스(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기록 중이며, 그 비중도 2016년 8.1%, 2018년 8.7%, 2020년 9.8%로 점차 높아지고 있음.[14)]
- 한편 3국으로의 의약품과 의료용기기 수출이 최근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됨.
  - ○ 아르메니아로의 의료용기기 수출이 2019년 180만 달러에서 2021년 24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조지아로의 의약품 수출은 398만 달러에서 1억 5,000만 달러로 급증함.

표 2. 한국의 코카서스 주요 수출품목(2021년 기준)

(단위: 천 달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순위	품목명	MTI	금액	품목명	MTI	금액	품목명	MTI	금액
1	승용차	7411	8,019	승용차	7411	56,206	승용차	7411	18,924
2	의료용기기	7331	2,421	합성수지	2140	8,590	아연도강판	6134	17,294
3	계측기	8151	1,708	자동차부품	7420	6,761	의약품	2262	15,006
4	화장품	2273	1,385	화물자동차	7412	5,440	윤활유	1336	10,410
5	자동차부품	7420	1,217	건설중장비	7251	4,457	합성수지	2140	6,821
	총수출		22,845	총수출		108,082	총수출		103,228

주: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2. 2. 3).

14)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신차 판매 기준으로는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15% 후반대로 추산됨. KOTRA(2021. 12. 31), 「아제르바이잔 자동차 및 조선 산업 현황」(검색일: 2022. 2. 7).

■ 코카서스 3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나 아르메니아로부터 직물제의류와 기타금속광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함.

- 2017년부터 연평균 약 42%의 증가율로 직물제의류 수입이 빠르게 늘어났으며, 기타금속광물 역시 2021년 수입액이 2019년 대비 3배로 늘어나면서 대아르메니아 수입 증가를 견인함.
- 대조지아 수입은 동괴 및 스크랩, 기타정밀화학원료가 주를 이루나 모두 2017~18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 있으며, 아제르바이잔부터의 수입품은 대부분 고장 등으로 인한 반품이 집계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15)]

표 3. 한국의 코카서스 주요 수입품목(2021년 기준)

(단위: 천 달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순위	품목명	MTI	금액	품목명	MTI	금액	품목명	MTI	금액
1	직물제의류	4412	20,155	그림	9210	620	동괴 및 스크랩	6221	5,841
2	기타금속광물	1190	16,828	개별소자반도체부품	8314	383	기타정밀화학원료	2289	3,057
3	동광	1130	8,748	X선 및 방사선기기	8146	168	직물제의류	4412	657
4	편직제의류	4411	604	분석시험기	8155	66	편직제의류	4411	602
5	기타인쇄물	9190	489	철강재용기	6161	38	주류	0157	378
	총수입		47,380	총수입		1,519	총수입		11,204

주: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2. 2. 3).

■ 수교 이래 한국의 코카서스 누적 투자액은 약 2억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며, 2018년부터 신규법인이 1건도 보고되지 않는 등 투자가 정체된 상황임.

- 조지아에 대한 누적투자액만 약 1억 9,900만 달러로 전체 코카서스 투자의 대부분인 96%를 차지함.
  - ○ 2015년부터 집중된 대조지아 투자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추진하고 있는 넨스크라(Nenskra)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임.[16)]
-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투자규모는 전체 코카서스의 2.6%인 500만 달러로 양국 대통령의 상호방문 이후인 2008년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투자금이 유입됨.
  - ○ 이후 대아제르바이잔 투자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며, 2016년 경기침체 이후 추가투자와 신규법인 설립 모두 중단된 상태임.
- 아르메니아 누적투자액은 300만 달러(전체 코카서스 투자의 1.4%)로 코카서스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연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2004년, 2008년, 2017년 각각 신규법인 1개가 설립되고, 단발적인 투자가 있었음.
  - ○ 대표적인 투자사례는 2017년부터 의료기관 '차움'이 아르메니아 딜리잔에 설립 중인 '차움 딜리잔(Chaum Dilijan)' 센터로 아르메니아 투자재단인 IDeA(Initiatives for Development of Armenia)가 투자하고 차움이 인사관리와 컨설팅, 위탁운영을 담당할 계획임.[17)]

15) KOTRA(2021), p. 36.
16) 넨스크라 수력발전 사업은 2015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지아 정부로부터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수주한 사업으로 조지아 북서부 넨스크라강 유역에 280메가와트(MW) 규모의 수력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사업지역 내 수해 발생, 조지아 내 사회단체의 사업 반대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면서 당초 2020년 준공에서 2025년으로 사업기간을 5년 연장함. 「[글로벌-Biz 24] 수자원공사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 사업', 미운오리서 백조 되나」(2020. 8. 21); 「2066억 투입 수자원공사 넨스크라댐 건설 사업 진행 불투명」(2020. 10 .19).

그림 6. 한국의 대코카서스 투자액 추이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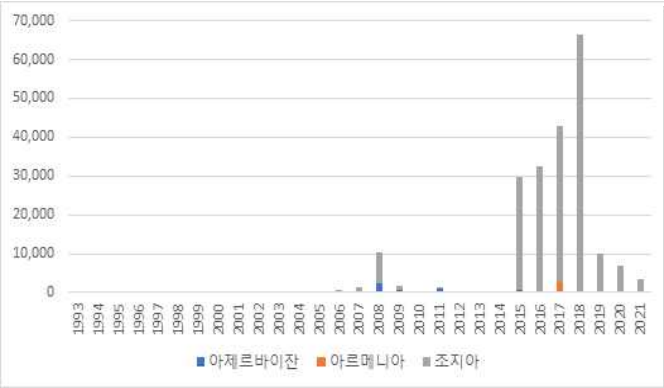


그림 7. 한국의 대코카서스 신규법인 추이

(단위: 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22. 2. 4).

나. ODA 및 인적 교류

■ [ODA] 아제르바이잔이 2016년 한국의 제2기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되면서 개발협력 지원이 집중된 반면,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에 대한 원조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어옴.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KOIC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1억 3,000만 달러(지출액 기준)를 투입해 아제르바이잔에서 총 321개의 사업을 수행함.
  - ○ 대표적인 사업은 EDCF를 활용한 직업훈련센터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임.
- 그러나 2021년 선정된 제3기 중점협력국에는 아제르바이잔이 제외되었으며,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완료하고 이후에는 정책자문 및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으로 원조방향을 전환할 계획임.[18]
  - ○ 아제르바이잔은 ODA 공여국으로 ODA 수원에 소극적이고, 원조실적 및 협력전망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지원은 2018년 342억 원, 2019년 215억 원에서 2021년 136억 원, 2022년 51억 원으로 축소되었음(ODA 예산 확정액 기준).[19]
- 조지아와는 2019년 EDCF 차관에 관한 협정을 체결 및 발효했으나 현재까지 EDCF 지원금 집행 및 승인 내역은 없으며, 무상원조 실적만 보고되고 있음.
  - ○ 대표적인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해양조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24년까지 조지아 주요 해역에 대한 수심측량, 해도제작, 해양조사 기술 전수, 실시간 해양 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해양 재해 대응기술 전수 등을 실시할 계획임.[20]
- 아르메니아 역시 무상원조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은 2010~11년 KOICA가 수행한 국회의정활동 지원시스템 개선사업(전자투표 시스템 등 구축)임.

17) 「[Health Journal] 차움, 국내 의료기관 최초 아르메니아 진출」(2017. 5. 10).
18) 관계부처 합동(2021), p. 4.
19) 관계부처 합동(2019), p. 148; 관계부처 합동(2022), pp. 50~167 중 아제르바이잔 관련 사업만 발췌하여 정리함.
20) 국립해양조사원 보도자료(2021. 6. 18).

표 4. 한국의 대코카서스 3국 원조 현황(2010~20 누적액)

(단위: 천 달러)

구분	무상원조			유상원조		
	사업개수	약정액	지출액	사업개수	약정액	지출액
아르메니아	42	4,902	3,664	-	-	-
아제르바이잔	307	75,747	67,045	14	65,500	66,527
조지아	66	3,312	3,112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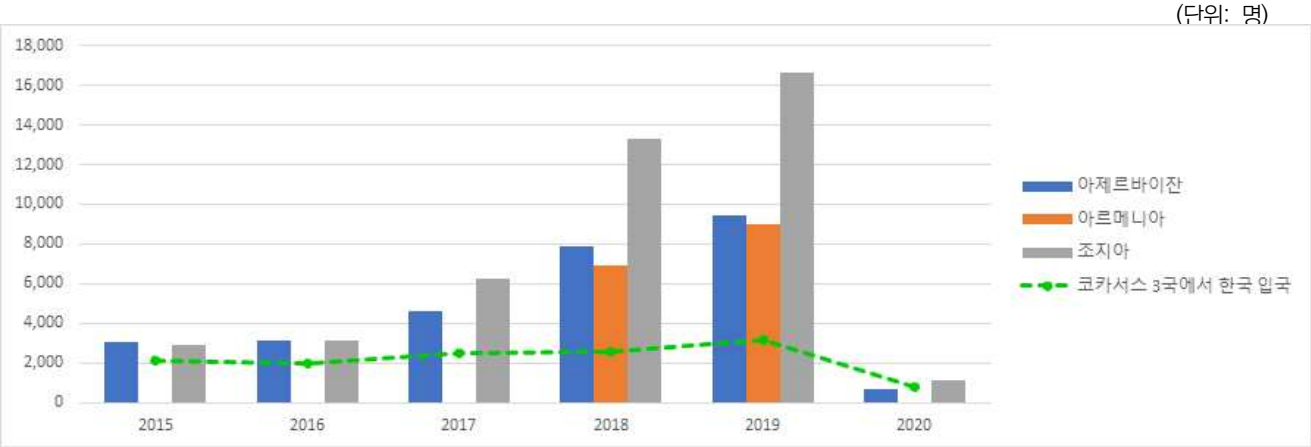
자료: ODA KOREA(검색일: 2022. 3. 3).

■ [인적 교류] 조지아, 아르메니아에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코카서스 지역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인 방문객이 빠르게 증가함.

- 조지아를 중심으로 한국인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2019년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감함.
  - ○ 2019년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한 한국인은 9,415명으로 2016년 3,132명 대비 3배 늘어났으며, 조지아를 방문한 한국인은 2016년 3,113명에서 2019년 16,642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함.
  - ○ 총 방문객 대비 한국인의 비중도 2016년과 비교할 때 2019년에 두 국가 모두 상승(아제르바이잔 0.14 → 0.30%, 조지아 0.06 → 0.22%)하면서 다른 국가의 관광객보다 한국인 관광객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음을 보여줌.
- 조지아가 2015년 6월부터 한국인에 무사증 입국(360일)을, 아르메니아가 2018년 3월부터 무사증 입국(180일)을 허용하면서 방문이 간편해졌으며, 방송매체를 통해 코카서스 관광 콘텐츠가 소개된 것 등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코카서스 3국 국민의 한국 입국도 2015년 2,100명에서 2019년 3,100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760명으로 감소함.

그림 8. 코카서스 3국의 한국인 방문객 추이

(단위: 명)



주: 아르메니아는 2018~19년도 데이터만 확인 가능.

자료: 각국의 한국인 방문객은 각각 The State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Georgian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Ministry of Economy of the Republic of Armenia 통계자료를 활용했으며, 한국으로의 코카서스 3국 입국자는 국가통계포털(KOSIS)을 참고(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2. 1. 28).

4. 미래협력 방향과 과제

■ 코카서스 3국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과 전략적 가치, 한국의 협력수요를 고려한 협력 분야 발굴과 협력방향 설정이 요구됨.

- 코카서스 3국은 원자재 의존 경제의 취약성 극복을 위해 수출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다각화를 핵심 성장과제로 추진하고 있음.[21)]
  - ○ 3국 모두 전통산업인 농업에 대한 경제 및 노동인구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 가공제품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산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음.[22)]
  - ○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는 제조업에서 식품가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교역도 에너지 및 광물을 제외하면 과실·견과류·채소 등 농산물과 식품가공제품이 주요 수출품임.
  - ○ 코카서스는 풍부한 문화유산, 흑해와 코카서스 산맥 등 자연환경, 저렴한 물가 등으로 관광지로서 해외 방문객 규모나 관광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임.
- 코카서스는 물류·교통 회랑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지역으로 3개국 모두 이 같은 지리적 위치를 활용한 역내 교통·물류 중심지로의 성장을 발전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생산구조 다각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각국은 이 같은 성장과제와 유망 분야 육성을 위한 정책을 경제발전전략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 아제르바이잔은 2016년 발표한 '국가 경제 및 주요 경제 분야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에서 산업분야별 육성전략을 제시하면서 공산품 및 식품, 관광 및 운송업에 대해 교역을 통해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강조함.
  - ○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는 2020~21년 발표한 국가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농업, 관광, 에너지 및 교통·물류 인프라 부문의 육성정책을 제시함.[23)]

표 5. 코카서스 3국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국가	정책	채택 시기	주요 내용
아르메니아	정부 프로그램 (2021~26)	2021년 8월	- [목표] 수출지향, 지식기반, 포용경제 형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 [핵심과제] △사업 및 투자환경 개선 △중소기업 육성 △수출상품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 촉진 - [주요 육성분야] 제조업, 녹색경제, 첨단기술, 농업, 관광, 도시개발, 운송·도로·수자원·에너지 인프라 개발 등

21) 정동연, 강부균(2018), p. 30.
22)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 GDP의 약 7%, 노동인구의 37% 내외를 농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의 경우 GDP의 11%, 노동인구의 24% 수준임. The Worldbank data(검색일: 2022. 3. 7).
23) Center for Analysis of Economic Reforms and Communication Electronic Monitoring and Evaluation Portal(2016); Government of Georgia(2020);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rmenia(2021).

국가	정책	채택 시기	주요 내용
아제르바이잔	국가경제 및 주요 경제 분야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	2016년 12월	- [목표] 비석유 부문 발전과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통한 질적 성장 - [핵심과제] 안정적인 거시경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민간투자 촉진, 공공지원 확대, 첨단기술 개발, 최적의 경제구조 달성 - [주요 육성분야] 농업제품, 중소기업, 중공업 및 기계제조, 관광, 물류 및 무역, ICT 등 * 교역이 가능한 상품(공산품 및 식품)과 서비스(관광 및 운송)는 빠른 생산성 향상이 가능,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
	아제르바이잔 2030: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우선순위	2021년 2월	- [목표] 모범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을 갖춘 강력한 국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높은 수준의 경제활동 촉진 - [핵심과제] △높은 경제성장률 및 경제안정 △이익의 평등한 배분 및 공정한 사회, 지역균형발전 △창의적인 사회, 교육 및 보건 강화 △회복한 영토 재건 △생태환경 회복 및 녹색에너지 활용 촉진
조지아	정부 프로그램 2021~24: 유럽 국가 건설을 향해	2020년 12월	- [목표] 전염병 위기 극복, 빠른 경제회복 및 발전,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 조성, 유럽과 통합하기 위한 제도·경제·사회 정비 - [핵심과제] △거시경제 안정 △사업·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확대와 외국인투자유치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빈곤 감소 △역내 물류 및 투자 허브로서 입지 강화 - [주요 육성분야] 도로·수자원 인프라 개발, 에너지, 운송 및 물류, ICT, 지역개발, 농촌개발 및 농업(수출확대 및 제품 경쟁력 강화), 관광

주: 아제르바이잔은 '국가경제 및 주요경제 분야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에서 각 산업 분야별로 2030년까지 시행 계획인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으며, '아제르바이잔 2030: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우선순위'는 우선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자료: Government of Georgia(2020); Center for Analysis of Economic Reforms and Communication Electronic Monitoring and Evaluation Portal(2016);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202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rmenia(2021)를 종합하여 저자 정리.

- 한국정부는 코카서스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구축지원 등 농업 분야에 대한 진출 및 협력을 우선 추진할 계획임.[24]
  - ○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는 또한 2021년 개최한 9차 회의에서 농수산 협력을 8대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재정립하고 농식품 시장개척, 농업 다이얼로그, 곡물 유통망 확대, 스마트팜, 농수산 ODA 등을 통한 북방공동체 형성 계획을 밝힘.[25]

■ 이러한 양측의 협력수요를 고려할 때 농업·식품가공, 교통·물류, 관광,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코카서스 3국과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농업, 식품가공] 각국은 농업보험 및 금융지원 확대, 농업 제반 산업(장비, 종자, 비료, 수의학 등) 발전,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농지 및 축산 자원 데이터베이스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공통적으로 추진 중임.
  - ○ 한국정부는 농업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공유하고 농기계·종자·비료 등 농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ICT 역량을 활용해 데이터베이스와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부문에서 협력할 수 있음.
- [교통·물류] 통일된 교통·물류 플랫폼 구축을 통한 효율성 및 서비스 제고, 항공·철도·도로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을 통한 물류 역량 및 연결성 강화를 목표로 함.
  - ○ 교통·물류 회랑으로서 코카서스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각국이 계획하고 있는 인프라 사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디지털 교통·물류 플랫폼 구축 등에서 우선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음.

24) 북방위 보도자료(2020. 6. 23).
25) 북방위 보도자료(2021. 3. 31).

- [관광] 각국은 서비스 품질 향상, 신규 상품 개발, 관광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신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 ○ 한국은 코카서스 3국과 관광정보 공유 및 직항 개설 등 인적 교류 확대를 검토하고 리조트 건설 등 다양하게 추진 중인 관광 인프라 보수 및 신설 사업에 대한 참여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 각국은 수력·태양광·풍력 등 발전소 건설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전력 생산을 확대하고 역내 전력 거래 기반 조성, 에너지 효율화(송배전 인프라 보수 및 현대화) 등을 추진 중임.
  - ○ 아제르바이잔은 현재 17%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는 총 전력생산 중 태양광 비중을 2030년까지 15%로 늘릴 계획임.[26]
  - ○ 코카서스 지역의 전력 생산 다각화 필요성 및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 기업 및 정부의 관심이 요구됨.[27]

표 6. 산업 분야별 코카서스 3국의 주요 육성정책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농업·식품 가공	- 금융 접근성 및 농작물·가축 보험 강화 - 관개·종자 구입 지원 및 농기계 임대 - 유제품 생산 및 가공, 도축장 건설 등에 대한 장비 임대 - 농산물 가공 역량 강화 및 신기술 도입 지원	- 식량 정보·모니터링 시스템, 전자 등록·통계 시스템 구축 - 경쟁력 있는 농산물 및 가공제품 생산, 기업식 농업 지원 - 금융 메커니즘 개선, 농업보험 도입 등 금융 접근성 제고 - 농업 장비, 종자, 비료, 수의학 등 관련 시장 발전	- 금융지원 및 농업보험 강화 - 해충·자연재해 대비 시스템 정비 - 농식품 수출증대 및 신시장 개척 - 농지정리 및 데이터베이스화 - 관개 및 배수 확충
교통·물류	- 통합 여객운송 온라인 플랫폼 도입 - 철도 인프라 개선 및 현대화 - 남북도로회랑 투자 프로그램 이행, 트란체(Tranche)2 및 트란체 3 재건 활동 재개, 시시안-카자란(Sisian-Kajaran) 도로 60km 구간 건설 등	- 바쿠항 복합단지 및 바쿠-트빌리시-카스 철도 완공 - 트럭 운송 인프라 향상, 화물·취급 서비스 개선, 해외 협력 강화, 전국 물류센터 보강 - 알라트 자유무역지대 가공 클러스터 개발 - 헤이다르 알리예프 국제공항 물류허브 구축	- 포티항 확장 및 아나클리아 심해항 건설 추진 - 바투미 공항 및 쿠타이시 국제공항 확장 추진 - 바쿠-트빌리시-카스 철도 완공, 철도 현대화 추진 - 200km 고속도로 신설 및 도로 보수 - 통일된 교통·물류 디지털 플랫폼 구축
관광	-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신규 관광객 유치 - 관광지 인프라 개선 및 관광상품 다양화 -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다양화를 위해 국제 호텔체인 확대 - 항공편 운항 확대(2025년까지 25개 지역 신규 취항)	- 관광진흥기구 설립, 관광 오락구역(Tourism Recreation Zone) 조성 - 국가 관광 품질 시스템 구축을 통한 만족도 증대 - 비자 발급 및 국경 통과절차 간소화 - 관광상품 개발(웰빙, 겨울, 문화, 비즈니스, 생태관광 등)	- 관광객 유치 시장 다변화 - 서비스 수준 향상 - 신규 관광상품 개발: The Wine Road 프로그램 확대, 스키 리조트 개발 -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개선

26) 아르메니아의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기여도는 현재 평균 11%(2015~20년 연평균) 수준임. "Azerbaijan's Clean and Green Energy"(2022. 3. 13); IEA(2022), p. 15.
27) 조지아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전력소비가 2020년 대비(12.8TWh)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전력 부족량이 3TWh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Invest in Georgia(2020), p. 81.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신재생) 에너지	- 천연가스 의존도 감소 - 점진적 전력시장 자유화, EAEU 공동 전력시장 형성 - 원자력 발전소 현대화 및 수자원, 태양광 발전 비중 확대 - 에너지 기반 시설(생산, 송배전, 변전소) 재정비 및 현대화 - 이란, 조지아와 신규 송전선 구축, 남북 송전회랑 이니셔티브 이행	- 전력 수출 증대, 국가간 전력 교환을 위한 통과국가로서 역할 확대 - 친환경 전기 생산을 통한 전력 생산방식의 다각화 - 모든 경제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 친환경 차량 이용 촉진	- 전력거래시장(The Georgian Energy Exchange) 개설 - 가르다바니(Gardabani) 가스저장소 건설(2024년까지) - 수력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주변국과 송전선 연결

자료: Government of Georgia(2020); Center for Analysis of Economic Reforms and Communication Electronic Monitoring and Evaluation Portal(2016);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202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rmenia(2021)를 종합하여 저자 정리.

■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이후 회복한 영토 재건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조지아는 수력발전 인프라 구축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해당 분야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재건하고 교통·물류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28]
  - ○ 아제르바이잔은 1992년 전쟁에서 아르메니아가 점령했던 나고르노-카라바흐 주변 지역을 2020년 전쟁을 통해 수복했으며, 해당 지역 도시재건과 도로·철도·항공 인프라 보수 및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
- 조지아는 충분한 전력 생산을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수력발전소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도 2건의 수력 발전사업을 추진 중으로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이 요구됨.
  - ○ 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총 130개의 MOU를 체결한 가운데 110개(106개는 중간규모, 4개는 대규모)가 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것임.[29]
  - ○ 한국수자원공사가 2015년부터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건설(2025년 완공 예정)을 추진 중이며, 한국수력원자력이 2019년 조지아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렌테키(Lentekhi) 수력발전소 개발을 추진할 예정임.[30]
- 아르메니아와는 우선 경제공동위 설립, 경제협정체결(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등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교역, 투자 등 전반적인 경제협력이 정체된 상황에서 정부간 협의의 정례화를 통해 소통을 확대하고 신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코카서스 3국과 정책협의회 및 경제공동위(아르메니아 제외)를 운영하고 있으나 회의가 대체로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면서 세부적인 협력안건 발굴 및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음.

28) Ministry of Economy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발표자료(2021. 11. 25).
29) Government of Georgia(2020), p. 28.
30) 렌테키 수력발전소는 설비용량 192.5MW 규모이며, BOO(Build-Own-Operate) 방식으로 발전소를 완공해 한수원이 영구적으로 소유, 운영할 예정임. 한국수력원자력 보도자료(2019. 4. 23).

- 양국간 협력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관리를 위해 정부간 정기적인 협의가 요구되며, 유망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무부처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코카서스 3국 간 경제협력 규모가 작고 협력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ODA를 협력관계 구축 및 민간기업 진출과 연계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며, 직항 개설 등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코카서스 3국과의 관계를 강화 및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한국과 협력이 유망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교류, 지식공유, 인적 교류 등을 실시함으로써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에서 나아가 민간기업의 진출까지 연계하는 ODA 협력전략 수립이 요구됨.
  - ○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협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온 ODA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 정책자문, 지식공유 등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음.[31)]
-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코카서스 내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보건 시스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코카서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직항 등 관련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으로 한-코카서스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관련 협의를 진전시켜야 할 것임.
  - ○ 2019년 문희상 국회의장의 조지아 방문 시 살로메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을 면담하고 직항 개설에 대한 기대를 공유했으며, 같은 해 양국이 항공협정에 가서명(2021년 정식서명)하면서 직항 개설을 위한 후속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임.[32)]

■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정학적 질서, 세계무역환경 및 국제금융질서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사태의 파급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코카서스를 포함한 북방 국가와의 협력방향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33)]KIEP

31) 2010~20년까지 한국의 대아제르바이잔 누적 ODA(지출액)가 1억 3,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투자의 63배가 넘을 정도로 양국 관계에서 개발협력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음.
32) 「文의장 "한·조지아 동질감 커…文대통령에 조지아 가라고 할 것」(2019. 10. 19); 「[단독] 숨겨진 동유럽 명소 '조지아', 직항로 열린다」(2019. 8. 4).
33)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요국 및 국제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분야별 책임 박정호 외(2022)를 참고.

참고문헌

[국문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9.「'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확정액 기준)」.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32-1호).

_____. 2021.「ODA 중점협력국 재선정」.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36-3호).

_____. 2022.「'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40-12호).

국립해양조사원. 2021.「한국, 조지아 해양조사의 역사를 쓰다」. 보도자료. (6월 18일). http://www.khoa.go.kr/user/bbs/detailBbsList.do?bbsMasterSeq=BOARD_MST_0000000003(검색일: 2022. 3. 3).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 2020.「북방위 8차 회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별 경제협력 방안 구체화'」. 보도자료. (6월 23일). http://www.bukbang.go.kr/bukbang/news/0005/?boardId=bbs_0000000000000005&mode=view&cntId=44&category=&pageIdx=(검색일: 2022. 2. 2).

_____. 2021.「북방위 9차 회의 개최, '새로운 정세 변화 속 신북방정책 추진방향 논의」. 보도자료. (3월 31일). http://www.bukbang.go.kr/bukbang/news/0005/?boardId=bbs_0000000000000005&mode=view&cntId=45&category=&pageIdx=(검색일: 2022. 2. 2).

분야별 책임 박정호, 연원호, 강구상, 조동희, 이승신, 김규판, 안성배, 배찬권. 2022.「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오늘의 세계경제 2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2020.「러시아·아제르바이잔과 新북방정책 외연 확대」. 보도자료. (2월 5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141(검색일: 2022. 2. 25).

외교부. 2018.「조지아 개황」.

_____. 2019.「아제르바이잔 개황」.

_____. 2019.「한-조지아 경제협력협정 서명(3.11)」. 보도자료. (3월 11일). https://www.mofa.go.kr/www/brd/m_4060/view.do?seq=365266(검색일: 2022. 2. 2).

정동연, 강부균. 2018.「코카서스 3국 경제발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33.

한국수력원자력. 2019.「한국수력원자력, 조지아 수력·신재생에너지 사업 본격 착수」. 보도자료. (4월 23일). https://www.khnp.co.kr/board/BRD_000187/boardView.do?mnCd=FN070107&boardCd=BRD_000187&boardSeq=70115(검색일: 2022. 3. 21).

KOTRA. 2021.「아제르바이잔 자동차 및 조선 산업 현황」. (12월 31일).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200&CONTENTS_NO=1&bbsSn=403&pNttSn=191912(검색일: 2022. 2. 7).

_____. 2021.「2022 아제르바이잔 진출전략」. KOTRA 자료 21-218.

「[글로벌-Biz 24] 수자원공사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 사업', 미운오리서 백조 되나」. 2020.『글로벌이코노믹』. (8월 21일).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008211825134135620e02e8e3_1/article.html?md=20200821183249_S(검색일: 2022. 3. 3).

「[단독] 숨겨진 동유럽 명소 '조지아', 직항로 열린다」. 2019.『조선비즈』. (8월 4일).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2/2019080202185.html(검색일: 2022. 3. 10).

「통상본부장,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과 한러 FTA 등 논의」. 2021.『연합뉴스』. (12월 1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7061000003?input=1195m(검색일: 2022. 2. 14).

「한·조지아 경제공동위 출범…관광 등 실질협력 논의」. 2019. 『연합뉴스』. (12월 24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4133600504?input=1195m(검색일: 2022. 2. 6).

「文의장 "한·조지아 동질감 커…文대통령에 조지아 가라고 할 것」. 2019. 『연합뉴스』. (10월 19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9004200001(검색일: 2022. 3. 10).

「[Health Journal] 차움, 국내 의료기관 최초 아르메니아 진출」. 2017. 『매일경제』. (5월 10일). https://www.mk.co.kr/news/it/view/2017/05/310681/(검색일: 2022. 3. 2).

「2066억 투입 수자원공사 넨스크라댐 건설 사업 진행 불투명」. 2020. 『에너지데일리』. (10월 19일).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49(검색일: 2022. 3. 3).

[영문자료]

BP. 2020.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69th edition.

Center for Analysis of Economic Reforms and Communication Electronic Monitoring and Evaluation Portal. 2016. "Strategic Road Maps." https://monitoring.az/en/syx_list(검색일: 2022. 2. 15).

Eurasian Development Bank. 2021. "THE 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 PROMOTING EURASIA'S INTRAϖAND TRANSCONTINENTAL CONNECTIVITY." Reports and Working Papers 21/5.

European Commission. 2022. "REPowerEU: Joint European action for more affordable, secure and sustainable energy." Press release. (March 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1511(검색일: 2022. 3. 31).

Government of Georgia. 2020. "Government Program 2021-2024: Toward Building a European State." https://www.gov.ge/index.php?lang_id=ENG&sec_id=41&info_id=78149(검색일: 2022. 2. 15).

IEA. 2022. "Armenia 2022 – Energy Policy Review."

MINISTRY OF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GEORGIA. 2020. "Feasability Study to Be Launched In Line with Negotiations on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Georgia and Republic of Korea." Press release. (Nov. 9). http://www.economy.ge/?page=news&nw=1597&lang=en(검색일: 2022. 2. 27).

Ministry of Economy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2021. "Investment Opportunities in the Liberated Territories." KOTRA. '*한-아제르바이잔 무역투자 포럼*'. 11월 25일. 발표자료.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2021. "Order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on pproval of "Azerbaijan 2030: National Priorities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https://president.az/en/articles/view/50474(검색일: 2022. 2. 16).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rmenia. 2021. "Government Program 2021-2026." https://www.gov.am/en/gov-program/(검색일: 2022. 2. 16).

World Bank. 2020. "Improving Freight Transit and Logistics Performance of the Trans-Caucasus Transit Corridor: Strategy and Action Plan."

"Azerbaijan's Clean and Green Energy." 2022. *Modern Deplomacy*. (March 13). https://moderndiplomacy.eu/2022/03/13/azerbaijans-clean-and-green-energy/(검색일: 2022. 3. 14).

"BTK boosts container freight transportation in 1H2021." 2021. *Azernews*. (July 13).

https://www.azernews.az/business/181149.html(검색일: 2022. 3. 31).

"How Azerbaijan changed energy map of the Caspian Sea." 2021. *Tirana Times*. (April 29). https://tiranatimes.com/?p=150574(검색일: 2021. 5. 18).

"INSTC connects Europe with India for first time." 2021. *The Economic Times*. (June 24).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foreign-trade/instc-connects-europe-with-india-for-first-time/articleshow/83798511.cms?from=mdr(검색일: 2022. 1. 25).

"In the Caucasus, Competition Will Limit Cooperation." 2018. *Rane WorldView*. (Feb. 7). https://worldview.stratfor.com/article/caucasus-competition-will-limit-cooperation(검색일: 2022. 1. 27).

"'More Koreans in Georgia, more Georgians in Korea'." 2021. *The Korea Times*. (May 26).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1/05/113_309461.html(검색일: 2022. 2. 27).

"Southern Gas Corridor playing crucial role for Europe's energy security – analysis." 2022. *Caspian Barrel*. (Jan. 13). http://caspianbarrel.org/en/2022/01/southern-gas-corridor-playing-crucial-role-for-europe-s-energy-security-analysis/(검색일: 2022. 1. 24).

"TAP announced final volumes of Azerbaijani gas supplies to Europe." 2022. *Caspian Barrel*. (Jan. 15). http://caspianbarrel.org/en/2022/01/tap-announced-final-volumes-of-azerbaijani-gas-supplies-to-europe/(검색일: 2022. 1. 24).

[인터넷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국적(지역) 및 월별 외국인 입국자'. https://kosis.kr/index/index.do.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main.do.

Georgian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https://gnta.ge/statistics/.

Google Map, https://www.google.com/maps.

Ministry of Economy of the Republic if Armenia, https://www.mineconomy.am/en/page/89.

ODA KOREA, https://www.odakorea.go.kr/.

Southern Gas Corridor, https://www.sgc.az/en.

The State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https://www.stat.gov.az/source/tourism/?lang=en.

World Bank Data. https://data.worldbank.org/.